

7월 2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2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연중 최고..다우 1.1%↑	<p>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옛새제 상승세를 이어갔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음. CIT 그룹의 회생 기대감과 6월 경기선행지수 개선, 그리고 기업실적 호전이 투자심리를 북돋웠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04.21포인트(1.19%) 상승한 8,848.1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68포인트(1.2%) 오른 1,909.29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0.75포인트(1.14%) 상승한 951.13을 각각 기록했음.</p> <p>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다우 지수는 1월 초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특히 나스닥 지수는 작년 10월3일(마감가 1947.39P) 이후 9개월만에 1,900선을 회복했고, S&P 500 지수는 작년 11월5일(952.77P) 이후 8개월만에 950선을 탈환했음.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해 오후들어 상승폭을 넓혀 하루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음.</p>
美 6월 경기선행지수 0.7%↑..예상치 상회	<p>미국의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6월 경기선행지수가 0.7% 상승했음. 지수는 향후 3~6개월 뒤 경기흐름을 가늠케하는 지수임.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시장의 전망치도 상회했음. 블룸버그통신 조사로는 당초 0.5% 가량 상승이 예상되었음. 경기선행지수의 10개 주요 항목중 7개는 지수가 상승한 반면 3개는 하락했음. 장단기금리차와 주가, 주간 노동시간, 주택착공 허가건수,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은 개선 추이를 보인 반면 통화공급과 자본재주문, 소비자 기대심리 등은 위축세를 보였음.</p>
美 기업 절반 "이미 매출 바닥쳤다"	<p>전미기업경제협회(NABE)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분기 산업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102개 응답기업중 55%는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45% 가량은 이미 바닥을 지났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음. 응답자의 15% 가량은 매출이 2010년 내지 그 이후에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했음. 이를 감안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이미 바닥을 쳤거나, 올 연말까지 바닥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응답자의 36%는 지난 2분기중 인력을 감축했다고 밝힌 반면 고용을 늘렸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이같은 채용 응답률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30년중 가장 낮은 수치임. 그러나 응답자들은 연말로 가면서 고용감소세가 둔화되는 한편 순 채용 지수도 올 연말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음. 순채용 지수의 플러스 반전은 해고보다는 채용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함.</p>

제목	주요 내용
中 최대 주택건설사 9조원 규모 IPO 나서	중국 최대 주택건설업체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가 502억위안(73억달러, 9조1,000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건축공사는 이날 상하이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120억주(지분 40%)를 매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세계 증시에서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이다. 중국건축공사의 IPO는 중국 내에서 올들어 단행된 두번째 규모의 IPO 보다는 무려 28배나 큼. 또 중국 증시 역사 상 지난 2007년 10월 페트로차이나(668억위안)의 IPO 이후 최대 규모임.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가 올들어 79% 상승한 가운데 이 같은 엄청난 물량 공급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임.
이윤호 "쌍용차, 이대로 가면 파산 불가피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개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쌍용차(003620)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쌍용차는 법정관리 상태로, 회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생산 중단상태가 지속되면 쌍용차의 파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 그는 "노조의 공장 점거로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 이달말 이후까지 계속 되면 쌍용차는 파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측과 협력업체의 판단"이라고 설명.
금호타이어, 생산직 인력 18% 감축키로	금호타이어가 전체 생산직 사원의 18%에 해당하는 총 706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키로 했음. 20일 금호타이어(073240)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7일 706명의 정리해고를 합의해 달라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합의요청 통보서`를 노조측에 발송했음. 사측은 지난달 초 임금동결, 복지중단 등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력 구조조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노조에 통보했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